



해외여행의 로망, 대륙횡단 철도여행의 끝판왕 시베리아 횡단철도.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시베리아 타이거숲 근처 역에 정차한 열차 승객들이 겨울 풍경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제공 | 마중여행사

# 9288km 철도여행... '동토의 왕국' 시베리아 평원이 주는 선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 시베리아 횡단철도여행에 도전하다(상)

해외여행의 로망이라면 다른 사람이 쉽게 가기 힘든 곳을 방문하거나 인생의 추억으로 남을 각별한 경험을 얻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크루즈 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욕구가 반영된 트렌드다.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많이 대중화된 크루즈 여행이 시시하게 여겨진다면 눈을 육상으로 돌려보자. 크루즈 못지않은 장대한 여정을 누리면서 색다른 경험도 제공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륙횡단철도 여행이다.

특히 '동토의 왕국' 러시아를 질주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여행의 재미와 경험이란 측면에서 다른 어떤 철도여행보다 압도적이다. 러시아 문화와 역사를 지닌 도시를 만나고 광활한 시베리아 평원과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이칼 호수에서는 대자연의 경이로 느낄 수 있다. 스포츠동아는 두 번에 걸쳐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행의 남다른 매력을 소개한다. 이번 주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여행의 특성과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여정에서 만나는 도시들이다.

##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바이칼 기행 여정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잇는 세계 최장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 두개 대륙 통과

'시베리아 파리' 이르쿠츠크까지 알찬 여행 광활한 자연과 러시아 건축물 등 곳곳이 명소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서울~부산 22번 왕복 거리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다. 총연장 9288km로 지구 둘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서울과 부산까지 22번 왕복하는 거리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다. 비행기 직항으로 날아가도 9시간 반이 넘게 걸리고, 만약 열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종착역까지 달린다면 6박7일 15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길다 보니 철도의 양 끝,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는 무려 11시간의 시차가 있다. 그래서 달리는 동안 시간대가 7번이나 바뀐다. (혼란을 막기 위해 열차 내에서는 모스크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다)

엄청난 길이 때문에 우랄 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아시아(7512km), 서쪽은 유럽(1777km)으로 철도는 두 개의 대륙을 통과한다. 두 대륙의 경계는 모스크바로부터 1778km 지점인 페르보



이르쿠츠크 알렉산더 3세 동상.

우랄스카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알리는 기념비가 있다. 열차는 총 90여 개의 도시들을 지나는 데 이중 50여개 역에 정차한다. 또한 아무르, 레나, 예니세이, 오브, 볼가 등 유라시아 대륙을 흐르는 16개의 강을 지나간다.

●80km 느림보 기차에서 만끽하는 '슬로우 투어'와 아날로그 정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행은 전체 구간 중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분이라고 해도 4115km 길이에 탑승시간만 75시간, 3일이 넘는다. 물론 열차의 시설이나 서비스 등에서는 훨씬

더 인락하고 쾌적한 횡단열차들이 있다. 하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각별한 매력이 있다. 우선 광활한 대륙을 달린다는 그 자체가 매력이다. 이를 좀 꼬박 달려도 오막살이 한 채 볼 수 없는 오지, 겨울이라면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적막한 시베리아 평원을 달리는 여행은 그 자체가 압도적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속도는 시속 80~90km 정도다. 요즘 초고속열차와 비교하면 느림보 열차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 또한 재미다. 눈앞으로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풍경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타는 것은 익숙한 세상과의 단절이다. 팩스나 인터넷은 고사하고, 전화나 TV도 없다. 그동안 친숙했던 각종 첨단 미디어와 기기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철도여행에서 만나는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스크,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 동해와 맞닿은 항구 도시다.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의 중심지로 애국지사들의 발자취가 생생하게 남아있다. 구한말 한인들의 생활터전이었던 신한촌 기념비를 비롯해 혁명전사광장이라고도 불리는 중앙광장, 러시아혁명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가운데 가장 아

름답다는 블라디보스토크역, 잠수함 C-56 박물관, 도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독수리 전망대. 2차대전 때 전사한 무명용사를 기리는 영원의 불꽃 등의 명소가 있다.

하바로스크는 아무르강 유역의 도시로 행정, 산업, 교통의 중심지이자 극동지역 최대 도시다. 아무르강은 우리에겐 중국 이름 헤이룽강(흑룡강)으로 익숙한 곳이다. 하바로스크 역시 일제 강점기 좌파 독립운동가들의 본거지였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김유천 거리가 당시 한인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성모승천사원'으로 유명한 러시아 정교회 우스펜스키 성당이 있는 콤포솔 광장,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정교회 성당이 있는 명예광장, 지리학 박물관 향토박물관, 아무르 전망대 등이 주요 관광 명소다.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 도시들 중 유일하게 35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릴 만큼 유럽에 맞먹는 문화도시로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탐차가 주요 관광 명소다. '탐차'는 불이란 뜻으로 이 지역의 오래된 목조 건축물 견본을 시베리아 여러 곳에서 가져와 전사한 박물관이다. 사머니즘과 러시아 정교회가 추구하는 전통양식, 유럽 바로크 형식이 혼합된 이른바 '시베리아의 바로크' 형식의 독특한 건물도 많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식사는 정차하는 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 ■ 여행 팁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통상 24량으로 구성된 장대열차들이다. 여객용 객차는 21량이고, 여기에 소화물 차량과 식당차가 각각 한 량씩 물린다. 여객열차는 모두 침대 열차인데, 객실은 I에서 IX까지 로마자로 표시한다. 2인 침대칸은 1-18번, 4인 침대칸은 1-36번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침대 번호를 표시한다. 열차 종류는 가격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은 침대 두 개의 '룩스', 2등급은 침대 네 개의 '쿠페', 그리고 3등급은 침대

여섯 개의 '플라즈카르타'라고 부른다. 여객차량 하나에는 보통 2명의 차장이 탑승해 티켓 확인, 객차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열차에 타면 차장은 티켓과 여권을 대조하여 확인해 객실을 안내한 후 베개 덮개, 침대 시트, 수건 등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준다. 횡단철도 차장은 긴 철도 여행 동안 가장 오래 만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얼마나 친해지느냐에 따라 여행의 성패가 좌우된다. 말은 안 통하더라도, 초코파이나 컵라면 작은 선물을 주면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 또한 우리와 달리 차장이 열차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판매

하는데, 이를 구매해 주면 쉽게 친해진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여행에서 극복해야 할 난제는 화장실과 샤워 문제이다. 각 객차에는 2개의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에는 수세식 변소와 세면대가 있으며 화장지가 있다.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화장지는 바닥이 나고 더러워진다. 각자 개인 수건, 그리고 화장지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러시아의 정규 열차에는 샤워 시설이 없다.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는 찬물만 나온다. 세면대 배수구에 막음장치가 없는데 대용으로 골프공이나 고무패킹을 쟁거가면 유용하다. 특히 화장실은 다음 정차 역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폐쇄되고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다시 개방한다.

식당칸이 있으나 비싼 가격에 비해 맛이 좋지 않아 현지인도 잘 이용하지 않는다. 20~30분 정도 정차하는 역의 매점(키오스크)나 좌판에서 먹거리를 개별적으로 사먹게 낫다. 차를 좋아하는 러시아인 특성 때문에 열차에는 뜨거운 물을 항상 비치해 컵라면이나 핫반 등을 쟁거가면 좋다. 또한 공식적으로 객차 내 보드가 음주는 금지되어 있지만, 통상 음주를 묵인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과음과 그로 인한 고성방가나 다음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정차역에서 현지 경찰에 인도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열차의 난방상태는 양호해 섭씨 22~25도를 유지하고, 객차 내에서는 발이 편한 슬리퍼가 좋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주최 스포츠동아 · 마중여행사

TRANS-SIBERIAN RAILROAD & BAIKAL TRAVEL

##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바이칼 기행

블라디보스토크 · 바이칼 · 알혼섬 · 이르쿠츠크

2017년 2월 19일 (일) ~ 2월 26일 (일) / 7박8일

2월19일 인천출발-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기념비, 중앙광장 등

2월19일~22일 시베리아 횡단열차 체험 (약75시간 소요)

2월23일 이르쿠츠크-알혼섬 후지리마을 이동 (약4~5시간 소요)

※이르쿠츠크 → 우스피야르다 → 바안다이 → 엘란 → 사후르따 (MRS선착장) → (우아직)으로 후지리마을 이동

2월24일 알혼섬 북부빙상투어 (누르간스크, 삼형제 바위, 하보이 꽃) ※ 일몰과 별자리 감상

2월25일 이르쿠츠크 시내답사 (데카브리스트박물관, 조나멘스키수도원, 골작제독동상, 통나무집마을 130번가)

※ 러시아전통 "반야체함"과 러시아 꼬치구이 "사슬릭"

2월26일 이르쿠츠크 출발-하바로스크경유-인천도착

※ 양복항공료의 텍스, 시베리아 횡단열차(4인1실), 호텔2인1실, 현지교통편, 식사, 입장료, 팁, 보험료(1억) 등 일정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사 혹은 현지사정으로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01 겨울 횡단열차로 시베리아의 진주 바이칼가는 체험 (약4,115km)**  
광활한 시베리아 설원과 타이거 숲을 조망...

**02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정태연교수의 실감나는 인문학 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동대학원,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러시아문학전공, 문학박사학위

**03 바이칼 알혼섬 일몰과 별자리감상, 사계절중 별자리를 가장 잘볼수있는 계절 쏟아지는 별을보며 새해 소원빌기...**

**04 민족의 시원설 알혼섬 "부르한바위"와 언 호수 바이칼 알혼섬 일주 관광**  
투명하고 얼어붙은 바이칼호수의 특별한 빙상투어

**05 이르쿠츠크 시내답사**  
데카브리스트박물관, 조나멘스키수도원, 골작제독동상, 통나무집마을 130번가  
※러시아전통 (반야체함)과 러시아 꼬치구이 (사슬릭)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바이칼 기행

※ 참가문의 : **마중여행사(주)**

※ 참가비 : 268만원 (스포츠동아 독자 및 가족 특별할인가 253만원) TEL : 02-730-2270, 070-4177-2555

※ 모집인원 : 24명 (입금순 마감) FAX : 02-730-7911 E-mail : Judy4@naver.com